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제기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개선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가개선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총 52개 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급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개선 3단계 추진 로드맵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감염예방 권장 치료재료인 1회용 수술포,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체온유지기 등 6개 품목과 의료인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바늘 주사기, 안전나비바늘세트 등 6개 품목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1회용 사용 요구가 높거나 환자 또는 신생아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재료인 ERCP 카테터, 1회용 두피 클립,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EDI 카테터 등 28개 품목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되며 이는 2017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사용 시 내구성 저하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재료인 MVR blade 및 MVR knife 등 5개 품목과 시술시간 단축 등 기능을 개선한 치료재료 7개 품목에 대한 급여화를 2018년 상반기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했던 치료재료들에 대하여 병원이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더불어, 환자들은 별도산정 된 치료재료들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진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해외 인증
- 보험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담당자 연락처

1. 치료재료 별도산정 평가기준 관련 문의: 차지민 차장 (jmcha@synex.co.kr)
2. 기타 문의: 이성민 대리 (smlee@synex.co.kr)

more about Synex >>



Synex Newsletter는 ㈜사이넥스에서 보내드리는 보건의료시장 전문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국내 전문자와 주요기관이 발행하는 관련 자료들을 매일 검색하여 보건의료제품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알려드립니다.
(135-52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동빌딩 3층, 10층 / TEL : 02-6202-3300 / FAX : 02-2040-6250
Copyright 2013, Synex Consulting Ltd. All Rights Reserved.